

농어촌공 군산지사, “청년농 안정적 농업 정착 실질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 김경창 기자 · 2025.07.16 15:55

16일 청년 창업형 후계농 대상 농지은행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16일 올해 새롭게 선정한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 설명회를 했다.

이날 설명회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과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산시에서는 올해 모두 28명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을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 참여 방안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농지은행 사업별 주요 지원 요건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진 설명회에서는 특히 신규 청년농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0.5ha까지 m²당 3만 8,500원의 가격으로 연리 1%, 최대 3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에 대해서는 최대 3ha까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작물 재배 때 임차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안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이를 통해 초기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농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임대받은 비축 농지에 대해 통작거리 단축과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상호 농지를 교환할 수 있는 집단화 지원 제도도 소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관계자는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